남원시가 4월부터 남원예촌에 상설프로그램으로 추진한 관광형 시장 '꽃담장' 매출액이 1억여원을 달성하는 등 안착에 성공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플프마켓

남원예촌 꽃담장, 매출액 1억여원 달성… 성공적으로 안착

남원시가 4월부터 남원예촌에 상설프로그램으로 추진한 관광형 시장 '꽃담장' 매출액이 1억여원을 달성하는 등 안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문화 플프마켓 꽃담장은 벼룩시장과 자유시장에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화 융복협형 시장으로, 11월까지 총 16회를 진행했으며, 6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광형 플프마켓(자유+벼룩시장) 슬로건 답게 참여자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장으로 펼쳐지며,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관리체험, 꽃담열차운영과 연계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변사극 춘향전'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원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짜임새 있게 행사장을 구축하는 한편,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기획형 테마행사를 도입해 관광형 시장인 꽃담장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상설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꽃담장은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구 도심을 연결하는 거점지대로 6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구 도심에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자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 무궁화합창단, 한마음 소리축제 개최… 지역민과 함께 문화 교류의 장 펼친다

장수 무궁화합창단(회장 변명옥)이 주관하고 전라북도에서 후원하는 제7회 한마음 소리축제가 오는 20일 오후 6시에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무궁화 합창단은 강원 원주 수백밴드와 함양 리조이스 합창단을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 문화교류의 장을 펼친다.

이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눠실시하는데 식전 공연으로 강원 수백밴드공연과 장수색소폰연주, 논개난타, 장수소묵회, 청묵회작품이 전시되고, 1부행사로 내빈소개, 개회선언, 격려사가 있고 2부행사로 시낭송, 통기타공연, 가요공연과 레드팝스의 연주와 장수, 원주, 함양 교류화합의장이 펼쳐진다,

또한 먹거리 부스와 한방차 부스, 장수 특산품 부스도 설치된다.

제7회 한마음 소리축제가 오는 20일 오후 6시에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변명옥 회장은 "교류 한마음 소리축제를 통해 장수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지역고유의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두번 만나 더 기쁜 문화기획 공연 '진한 풍류'

오늘 오후 7시 진안문화의집서 개최

진안군은 11월 문화기획 공연으로 '진한 풍류'를 오늘 오후 7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국악가요 '배띄어라', 한국무용 '진도북춤', 국악기 합주, 마술사 김승준이 펼치는 '신비한 마술쇼', 가야금 병창, 민요의 향연 순으로 진행된다.

공연단체 소리유는 이름 그대로 '소리와 노닐다'라는 뜻을 품고 기존 전통음악을 전승하며, 그 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곡을 창작하여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팀이다.

관객들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곡과 화려한 장단, 신비한 마술쇼, 우리나라 민요를 신디와 다양한 국악기의 풍성한 연주로 신명나는 무대로 펼칠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11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클래식 발레 래퍼토리로 이루어진 무용 '발레야 놀자' 공연이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 준비했다"면서, "공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이 오늘 저녁 미국 워싱턴 DC 존 F 케네디 공연 센터 테라스극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을 공연한다.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

국립민속국악원,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늘 저녁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오늘 저녁 미국 워싱턴 DC 존 F 케네디 공연 센터 테라스 극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악단, 창극단, 무용단 등 12명의 단원과 제작진을 포함해 총 15명이 참여하며, 민속악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구성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으로, 대금산조, 판소리 입체창 '춘향가 중 사랑가', 장구춤, 가야금산조, 민요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사물놀이, 판굿 등 총 7개 작품을 선보인다.

왕기석 원장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해외 공연시장의 국악 진출 시도를 적극 확대해 한국 전통문화 우수성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 이해와 한류의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